

 <b>인천광역시</b>	<b>보도자료</b>		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
	배포일자	2023년 7월 3일(월) 총 2매	
담당 부서	자치행정과	담당자	• 자치행정팀장    조성훈 ☎ 440-2421 • 담당자            고준원    ☎ 440-2425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유정복 시장, 새벽 버스 차고지서 취임 2년 차 열어**  
 - 서창 공영버스 차고지 방문해 직원 격려, 저상버스 리프트 안전점검도 -  
 - 유 시장, “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할 것” -

유정복 시장이 민선8기 출범 2년 차 출발을 민생현장에서 열었다.

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3일 새벽, 서창 공영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버스운송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.

앞서 2023년 새해 첫 근무일인 1월 3일에도 유 시장은 환경공무원들과 인천논현역 일대를 돌며 생활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. 민선8기 2년 차 시작으로 새벽 버스 차고지를 방문한 것도 시민들과 가장 가까워서, 시민 불편 없는 시정을 이끌겠다는 유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
유 시장은 차고지 세차장과 충전시설 등을 돌아보며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폈다. 특히 버스 출차 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리프트 장치도 확인하며 안전 점검도 직접

챙겼다.

유 시장은 “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시민의 발과 같다” 며 “발이 편하고 아프지 않아야 원하는 곳 어디라도 갈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” 이라며 종사자들을 격려했다.

이어 “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도 꼼꼼히 살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” 고 당부하며, “인천시도 교통 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